

‘코딩 관심있는 장애청소년 모두 모여라’…1박 2일 축제의 장

SKT, ‘장애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 개최

**- 전국 장애청소년 98명, 교사 39명 참가…‘장애청소년 ICT 축제의 장’ 평가**

**- 1999년부터 23년째 장애청소년 ICT 역량을 키우기 위한 지원 행사를 꾸준히 개최**

**- 2019년부터 130여개 특수학교, 1300여명 대상 ‘행복코딩스쿨’ 운영, ICT 교육기회 제공**

|  |
| --- |
| **엠바고: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2022. 10. 27]**

SKT가 전국 장애청소년들의 ICT 역량을 키우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코딩챌린지 대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kodaf.or.kr)과 공동으로 24~25일 양일간 개최한 ‘2022 SKT 장애청소년 코딩챌린지’(이하 2022 코딩챌린지)에 전국 29개 특수학교(급) 장애청소년 98명과 교사 39명이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SKT는 지난 1999년부터 장애청소년들이 ICT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사\*를 꾸준하게 개최해 왔으며, 올해로 23년째를 맞았다.

※ ‘정보검색대회’(‘99년~’04년), ‘IT 챌린지’(‘05년~’15년), ‘ICT 메이커톤대회’(‘16년~’19년), 코딩챌린지 대회(‘21년~)

‘2022 코딩챌린지’는 장애청소년들의 코딩 역량을 겨루는 행사로,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T 인재개발원에서 1박 2일(10월 24~25일) 일정으로 치뤄졌다.

대회 사전과정으로 ‘코딩은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창작 콘텐츠 영상을 만들고, 행사 첫날인 24일에는 축구∙탁구∙볼링∙당구 등 미니올림픽과 레크레이션을 즐기며 참가 청소년 간 교류의 시간도 가졌다.

25일 개최된 IT챌린지는 ▲2인 1조로 전원이 참석하는 ‘소셜챌린지’ ▲2인 1조로 지적장애 청소년을 위한 ‘미션챌린지’ ▲지적 장애 외 청소년을 위한 ‘베스트챌린지’로 구성됐다.

각각의 챌린지 프로그램은 자석 코딩을 통해 다양한 색의 불을 끄고 켜거나, SKT알버트 로봇을 이용해 세계 빈곤국 어린이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코딩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한편 SKT는 2019년부터 전국 130여개 특수학교(급)에서 ‘행복코딩스쿨’을 운영하는 등 장애청소년들의 ICT 교육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행복코딩스쿨’은 장애청소년들을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 유형별로 14종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금까지 1300여 명(누적기준)의 학생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해왔다.

SKT는 또 이번 행사장 내에서 ‘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함으로써, 각각의 청소년들을 ‘장애’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바라봤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참가자들로부터 받았다.

박진수 분포고등학교 담당교사는 “학생들이 로봇이나 코딩을 접할 기회가 없었는데 ‘코딩챌린지’를 통해 특수학교(급) 학생들도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이후 IoT나 최신 기술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과정도 포함돼 학생들이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SK텔레콤 ESG추진 담당은 “SK텔레콤은 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ICT에 대한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 매년 ICT 경진대회 및 코딩교육을 운영해왔다”며 “앞으로도 장애청소년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미래 교육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공동으로 24~25일 양일간 개최한 ‘코딩챌린지’에 전국에서 장애청소년 98명, 교사 39명이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딩챌린지’에 참가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며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

**▶ 관련문의 : SK텔레콤 전략PR팀 박지웅 매니저 (02-6100-3832)**

